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년)	
	예비자교리		토요일 06:30 (새벽)/19:00(저녁) 목요일 10:00	
	유아세례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연령회 총무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목요일 마티아 010-5117-5564	

● 알 림

- 07월 08일부터 목요일 10시 레지오 미사가 재개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약)
- 오늘은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예비자 입교식

- 대상자 : 2021년 4월 시작 교리반
- 일 시 : 7월 11일(일) / 10:30 (교중미사)

● 2021년 견진성사 (10월 16일,토,11시)

- 대 상 자 :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 세례 받은 신자
- 교리기간 :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8주간)
- 일 시 : 매주 금요일 19:40~20:40
- 신청마감 : 07월 31일
- 신 청 비 : 20,000원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7월 05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일로 신부님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6월)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본당
17구역2반	서만심	프란치스카	서울/상도4동

● 미사 참례 안내 사항

- 백신 접종자는 지정석에 앉습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결식아동 모집/후원 *

- 장 소 : 가리봉동
- 일 시 : 매주 토요일 / 11:00~14:00
- 방학시 : 매일 / 11:00~14:00
- 결식아동 추천받습니다.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국제청소년지원단

👁 게시란 무엇인가?

-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종교적 진리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DNA에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시어 가르쳐 주신다.(모세의 떨기나무, 십계명 등)

● 다음 주일(07/1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0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6월23일 ~ 06월29일)

교 무 금	 9,180,000 원		
주일헌금	 4,501,000 원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343,000 원		
시설헌금	용경숙20만원 이정주30만원	박정순20만원	이지현20만원
감사헌금	정영자 1만원 차OO 5만원	백승숙10만원	박승윤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07/04	구민서	심재순	최상림
07/11	최경희	오성환	신종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7/04	박용환	이성일	최상남	박형순	이운영
07/11	박형순	이운영	최창열	황태영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맥락

57. 이 비유에는 오래된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 이야기 직후에 우리 네 관계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창세 4.9) 우리도 흔히 카인과 같은 대답을 내놓고는 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물음에 통하여, 무관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인 것처럼 정당화하려는 온갖 형태의 결정론이나 운명론에 대하여 따져 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우리의 반목을 극복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8. 욥기는 몇몇 공동 관리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우리가 같은 창조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드시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어내지 않으셨던가?”(욥 31.15) 수 세기가 흘러 이레네오 성인은 선율의 표상을 통하여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음과 저 음이 따로따로 창조된 듯 여기며 그 음들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대신에 전체 선율을 작곡한 이는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59. 히브리 전통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은 같은 민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국한된 듯 보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라는 옛 계명은 대개 동족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발전한 유다교에서는 점차 그 경계가 확장되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초대가 나왔습니다(토빗 4,15참조). 현자 힐렐(기원전 1세기)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다. 나머지 모든 것은 주해다.” 하느님의 태도를 본받으려는 열망은 가장 가까운 이들만 생각하는 성향을 극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집회 18,13).

60. 신약 성경에서는 힐렐의 계율이 긍정적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이러한 호소는 보편적이며,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를 품어 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마태 5, 45)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